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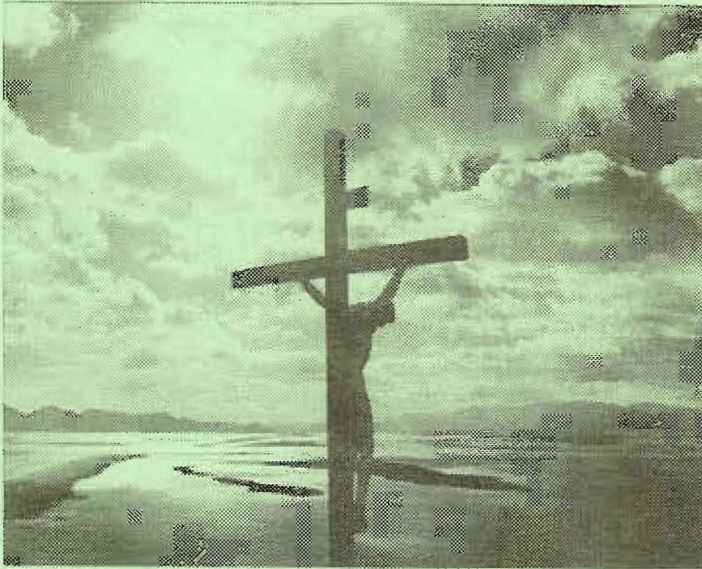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순교자 성월
제34권 42호(가해) 2014·9·14

[묵상]



성 십자가 현양축일

십자가는 사형의 도구입니다.
사형의 도구인 그 십자가,
그런데 그 십자가의 패션 감각이
예수님께는 너무나도 잘 어울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기꺼이 가슴에 껴안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패션 감각을 배우라 하십니다.
우리들에게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라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 어떤 것인가요?
영광의 십자가가 되기 위해서는
고통과 시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자주 잊고 살지 않습니까?

-오-

petrus3@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폐지 연락처) : (310)720-8240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백시오 디비나) 소년 레지오 마리아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6:00 오후 7:0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특전미사후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오전 9:30 ●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건회/ 오후 1:00 ● 꾸리아 오후 1:45 3째주 - 모임의 날 ● 요셉회 오후 1:00 ● 사목회장단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30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오향숙 마우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형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민찬기 요한, 유봉순 안나
	(생)김병조 마틴 & 박지연 요안나
주 일 낮미사	(연)이경용 야고보, 이윤조 클라라, 고준희 제임스, 박무성, 전시웅 요한, 이명자 로사, 김치곤 바오로, 이종기 대건안드레아, 유무서, 한상은 마리아, 이철우 야고보,
	(생)이광웅 요셉, 김기준 안젤라, 김정선 안나, 김영훈 토마스아퀴나스,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민수기(Numbers) 21,4-9

화답송 ○ 하느님의 업적을 잊지 마라.



○내 백성아, 나의 가르침을 들어라. 내 입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입을 열어 격언을,

예로부터 내려오는 금언을 말하리라.○

○ 죽이시던 그때서야 그들은 하느님을 찾고, 그분께
다시 돌아와, 하느님이 그들의 바위이심을 기억하였
네,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이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 그 입으로 그분을 속이고, 혀로는 그분께 거짓말
을 하였네. 그분께 마음을 굳건히 두지 않고,
그분 계약에 충실하지 않았네.○

○그분은 자비로우시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멸망
시키지 않으셨네. 당신 분노를 거둬 돌이키시고,
결코 진노를 터뜨리지 않으셨네.○

제 2독서 필리피서(Philippians) 2,6-11

복 음 ○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님, 경배하며 찬송하나이다.○

복 음 요한(John) 3,13-17

영성제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땅에서 들어 올려지면 모든
사람을 나에게 이끌어 들이리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목마른 사슴	234	208
봉헌	376	265	259
성체	431	106	304
파견	417	339	345

올바른 성령 이해

성령과 예언

“나는 모든 사람에게 내 영을 부어 주리라” (요엘 3,1).

제1장 성령은 누구신가?

3. 교회와 성령

2) 은사를 베푸시는 영

교회와 함께하시는 성령께서는 세례성사를 통하여 모든 신앙
인에게 오신다.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설교를 들은 청중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받을 것이라고 약속한다(사도 2,38).

세례를 받은 이들은 약속대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사도
9,17-19; 19,5-6). 세례를 통해서 신앙인들 안에 오시게 된 성
령께서는 그들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신다. “하
느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이들은 모두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을 사람을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 주시는 영을 받았습
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는 것
입니다” (로마 8,14-15; 갈라 4,6).

세례를 받아서 성령 안에서 하느님의 자녀가 된 이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어 동등한 품위를 지닌다.
(갈라 3,26-28; 1코린 12,13) 하지만 이런 동등성은 다양성을
배제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 분이신 성령께서는 다양한 은
사를 베푸시기 때문이다(1코린 12,4).

그래서 에페소서의 저자는 이렇게 권고한다. “성령께서 평화
의 끈으로 이루어 주신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쓰십시오.” (에페
4,3) 교회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다양한 은사로써 교회에 생
명과 활력을 주시고, 아울러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이 되도록 해주신다. 따라서 교회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모
든 것을 분별하여 좋은 것은 간직하고 악한 것은 멀리해야 한
다.(1테살 5,20-22) 신자들 각자는 “육의 욕망” 이 아니라 “성
령의 인도에 따라” (갈라 5,16)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
도록 노력해야 한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은유,
절제” (갈라 5,22-23)이다.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이들은 모두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성령 안에서 많은 열
매를 맺어야 한다.(요한 15,5.8.16)

3) 진리와 자유의 영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 (요한
16,13) 이시다. 성령께서는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로운 것
을 전해 주시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더욱 깊이 깨닫도록
이끌어 주신다.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
한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실 것이다” (요한 14,26).

<◆계속>

십자가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

벌써 30년이 된 일입니다. 봉성체를 위해 본당 근처에 살고 있는 한 청년을 한 달에 한 번 찾아가 병자 방문을 했습니다. 그 청년은 정상인보다 몇십년 먼저 노화를 일으키는 조로증을 앓고 있는 희귀병 환자였습니다.

그는 외출은 꿈도 못 꾸고 온종일 자신의 방에서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처음 만난 날, 그는 나이를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피부에 주름이 많았고, 하얀 머리털도 많이 빠져 노인같이 보였습니다. 말이 별로 없던 그의 방에 있는 낡은 성경책과 아주 큰 십자가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느날 봉성체가 끝나고 가려는데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신부님! 제가 몇 살처럼 보이세요?” “...” “저는 스무살입니다. 처음에 왜 나만 이 병에 걸려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과 가족들이 저를 배척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사람들과 세상을 참 많이 미워했습니다. 사람마다 십자가가 다르다는데 저는 제 자신이 십자가입니다. 저는 이제 얼마 못산다고 합니다. 제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저도 부활할 수 있겠지요? 그때는 건강했으면...,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신부님!”

고개를 푹 숙이고 이야기를 하는 의젓한 그의 모습을 보며 제 눈에 자꾸 이슬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 만남이 마지막이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는 다음 달 병자 방문을 가기 얼마 전 스무 살의 생을 마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은 성 십자가 현양 축일입니다. 우리 구원의 표지요, 생명과 부활의 상징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높이 쳐들고 감사와 찬미의 경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리뱀을 쳐다보고 불뱀에 물렸던 사람들이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 구원과 생명의 표지가 된 것도 바로 하느님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

한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고통이지만 구원의 길이요 하느님 사랑의 극적인 표현입니다. 하느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단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시켜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분명하게 하느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신앙인이 가야 하는 길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만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주어지는 십자가는 다를 것입니다. 환경이나 인간관계, 재물, 때로는 가족이나 친구, 그리고 나 자신이 십자가가 될 수도 있겠지요. 우리는 늘 나의 십자가 앞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허영엽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장

글을 쓸 때마다

내가 용서해, 라고 쓰면
용서해, 라고 당신은 읽습니다.
내가 고마워, 라고 쓰면
당신은 고마워, 라고 읽습니다.
내가 행복해, 라고 쓰면
당신은 행복해, 라고 읽습니다.
순하고 따뜻한 언어를 고르게 되는 건
그것을 읽어주는 당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통해 그 말들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영 아녜스 / 수필가

이번주 전례봉사가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곽수진 보나	신덕례 데레사	정광미 프란체스카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박진수 스테파노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곽수민 히메리오	박혜경 레나타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2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신덕례 데레사	이재용 안드레아
제1독서자	최태훈 아오스딩	김교복 레오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정진욱 노엘	서용숙 에스텔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남3반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순교
자들 대축일 경축이동 :
21일(주일 : 본당의 날)

- 미사시간변경안내 : 아침미사 : 7시 30분
 낮 미사 : 10시30분
- 주일학교 한국학교는 휴강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참여
할수있도록 인도해주시기바랍니다.
- 점심 : 본당에서 캐더링으로 전신자를 위해 준비합니다
- 구역별 장기자랑 : 1시30분 시작
- 장기자랑에 참여하시는 모든 교우들께 크리스탈 목주,
끝까지 남아계시는분들께 본당의날 기념타월 증정합니다.

- 일시 : 9월28일(주일)오후1시
- 장소 : 본당
- 강사 : 김재현 성우안토니오 신부(성 그레고리성당)

- 일시: 10월3일(금)오후4시~5일(주일) 오후 3시
- 장소: 드폴 피정센터
- 강사: 김태광 아오스딩신부(팔로티수도회)
- 참가비: \$100
- 신청: 강혜원 아네스☎(310)780-0369

● 자격 : 55세~64세 남자신자및 예비자

- 문의 : 양업희 회장 이재용 안드레아 ☎(949)502-1213
부회장 박개순 도미니코 ☎(310)971-7043

- 일시 : 10월3일(금)~5일(주일) 2박3일
- 장소 : Poverello of Assisi Retreat Center
- 대상 : 풍요롭고 충만한삶을 원하는 혼인부부
- 문의 : 정동호 하삼마오로& 병옥 율리아 ☎(310)780-9055

◆ **하느님의 자녀보호(Protecting God's Children for Adults) 교육**
아이들과 관련되어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은 L.A.대교구 방침으로 이교육을 수료하셔야 하고 또한 대교구에서 요구하는 지문채취를 하셔야합니다. 이 교육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직접 보호할수 있는지 알려주는 교육이기에 더욱 중요한 교육이라 생각됩니다. 본당에서 영어와 한국어로 교육을 다음과 같은 날짜에 시행합니다.

- 영어 Virtus Training : 10월11일(토)오전9시~12시
- 한국어 Virtus Training : 10월12일(주일)오후1시~4시
- 장소 : 본당 2층교실
- 대상 : 아이들과 관련되어 봉사하시는 모든 분
- 문의 : 서정우 프란치스코 ☎(310)408-9070
주일학교 교장 김낙기 바오로 ☎(310)709-3343

그동안 김춘자 막달레나 자매님께서 해 주시던 성물판매 봉사를 이번주부터 빈첸시오회에서 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랫동안 성심껏 봉사해주시는 김 막달레나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멕시코 선교용 학용품 수집...사무실내 지정공간

- 9월14일(주일) * PV 3반 :오징어덮밥(\$3),
*주일학교 : 칠리덕(12학년)
- 9월21일(주일) * 본당의날 행사

교무금	강태훈 구자운 김경훈 김기정 김선제 남성철 김윤진 김정웅 김종렬 김박식 박정복 안재만 박씨니 박음전 박인식 박정복 이근모 이복익 이상석 안재만 오신재 오일순 이복임 이태옥 이형철 주용순 이경수 이근모 이인두 이태옥 이형철 주용순 이은록 이인두 이태옥 이형철 주용순 전정자 정인옥 정정현 최길주 황철수 주이자 최기남 영희가보라 합계 : \$4,470	성전헌금	강태훈 구자운 김경훈 김기정 김선제 남성철 노혜숙 박씨니 김박음전 박인식 박정복 안재만 원건희 윤희동 이경수 이근모 이복익 이상석 이은록 장영우 정정현 정지숙 영희가보라 최기남 최길주 최지영 합계 : \$1,740
주일미사 헌금 : \$3,230	2차헌금 : \$861		광고후원: \$250(후코이단)

공지사항

◆ 주일학교 개학 및 2차 등록 접수 오늘까지 받습니다.

- 첫등록: 첫째 \$100, 둘째 \$80, 셋째 \$60, 넷째 무료,
재등록: 첫째 \$160, 둘째 \$140, 셋째 \$120, 넷째 무료,
- 자모회비: \$50(가정당)
- 문의: 주일학교 교장 김낙기 바오로 ☎(310)709-3343

◆ 주일학교 견진반 학생모집 (2014~2015학년도)

새학년도 견진교리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견진성사는 2년의 교육을 수료한 학생들만 받을수 있습니다.
신규등록자는 2016년에 견진성사를 받게됩니다.

- 대상: 주일학교 9~12학년
- 수업일시: 9월 10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8시반
- 장소: 2층 교사실
- 문의: 서정우 프란치스코 ☎(310)408-9070

◆ 주일학교 SOEL 밴드 Bassist/ Second Guitarist모집

- 대상: 오디션을 통과한 고등부 주일학생
- 오디션: 9월19일(금)저녁7시, 장당
- 문의: 이웅배 가브리엘 ☎(310)738-6928

“새 신자 환영합니다.”

남가주 소식

◆ 말씀의초막절: 9월 21일(주일) ~ 28일(주일)

- 개막미사: 21일 (주일) 오후4시
주례사제: 김기현 알렉스 신부
- 주간 예절: 9월22(월)-27일(토)
오전10~12시/오후 7시30~9시30분
- 폐막미사: 28일(주일) 오후 3시30분
주례사제: 이상훈 요한 신부
- 장소: 남가주 가톨릭성서모임 센터 ☎(714)521-1345

◆ 공동체를 위한 “함께 삶의 기쁨을”

- 일시: 9월 20일(토요일)
- 영성체 예절: 11시
- 식사: 정오
- 장소: 작은예수회 LA분원
1137 Arapahoe St. LA, CA 90006
- 문의: ☎(213)820-6535

◆ 제18회 남가주한인 가톨릭 미술가회 작품전

- 전시회 기간: 9월 6일~19일
- 장소: Lee & Lee Gallery
3130 Wilshire BL #502 L.A., CA 90010
- 수익금의 일부는 작은예수회에 성금합니다
- 문의: ☎(213)365-8285

☺ 서로 인사 합니다. ☺

소공동체 9월 반모임

소공동체 부 장 김명재 아가다 (310)866-8778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차 장 김희연 루시아 정병옥 올리아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강순복 요세피나 991-4838	최성자 카타리나 991-4838 9/20(토) 오후 6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박선희 안나 325-3888 9/13(토) 오후 7시
	3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박현희 프란치스코 592-4739 9/12(금) 오후 7시30분 성당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강인모테오도시오 780-3258	강인모테오도시오 780-3258 9/21(일) 본당의날 행사
	2	이호미 엘리사벳 991-8556	이호미 엘리사벳 991-8556 9/21(일) 본당의날 행사
	3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정광미 프란체스카 617-1132 9/21(일) 본당의날 행사
토런스 남 최옥희 테레사 508-2912	1	김준 방지거 625-3312	엄영숙 마리아 625-3312 9/21(일) 본당의날 행사
	2	박정란 마르시아 634-6923	박광자소화테레사 634-6923 9/21(일) 본당의날 행사
	3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송미숙 미카엘라 850-2822 9/13(토) 오후 6시 30분
토런스 북 조화숙 안젤라 213 272-8393	1	정병옥 올리아 404-1607	이 복임엘리자벳 905-2225 9/15(월)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권태만 실베스텔 989-9077	1/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김금자 테레사 749-3151 9/13(토) 오후 7시
	3	1,2반과 같음	
P. V. 남경희 베네딕도 384-3289	1	박종선 리비나 213-700-6983	남성철 베네딕도 408-1443 9/12(금) 오후 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배진영 프란치스코 793-6157 9/12(금) 오후 7시
	3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송인선 안젤라 503-927-0770 9/6(토) 정오12시 성당
	4	이귀란 아베스 617-3568	유현주 마리아막달레나 617-3568 9/9(화) 성당

이번 주 단체 모임

제단체 모임의날	오후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본당의 날	
-------	--

124위 시복특집 < 3 > 이도기 바오로(1743~1798)

...이보게, 천당을 헐값으로야 살 수 있나. 고통은 영원한 행복을 사는 돈일세. 용기를 내서 얼마 동안만 더 고통을 참아 받게 ...

충청도 청양에서 태어난 이도기 바오로는 본디 글을 알지 못하였지만, 하느님의 사랑과 천주교의 덕행만은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얼마 안 되는 재산을 모두 비신자들을 입교시키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천주교 신앙 때문에 위협을 받게 되자 그는 가족과 함께 청양을 떠나 산 너머의 정산으로 이주한 뒤 그곳 용기점에 터전을 잡았습니다.

1797년, 이도기의 나이 54세가 되었을 때에 정사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들은 인근의 김씨라는 비신자가 이도기를 '천주교 신자들의 두목'으로 고발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에 겁을 먹은 이도기의 아내는 도망칠 것을 권하였지만, 이도기는 신임교우들이 자신의 행동에 걸려 넘어질 것을 염려하여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체포된 이도기는 정산 판아로 끌려가 잦은 문초와 형벌, 굶주림과 추위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하루는 관장이 벼슬을 주겠다며 회유하자 그는 "정산 고을을 전부 주신다 해도 천주를 배반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모진 문초에 시달리면서도 이도기는 자신을 염려하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사람이, 내가 아직도 이 세상 것을 누릴 수 있기 위해 그렇게 한다면, 그들의 기도를 그만두어야 하오. 그러나 내 영혼과 내 영생을 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공로를 잊지 않도록 기도한다면 그들에게 끊임없이 기도를 드리도록 부탁해주시오. 나는 내 가족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기를 바라오. 내 음식은 당신 힘닿는 대로 하루나 이틀에 한 사발씩만 가져다주고, 그렇게 못하더라도 결코 걱정은 하지 마오. 앞으로는 누가 당신더러 내게 무슨말을 전해 달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것이 교우들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 말이 내 마음을 흔들리게 할 성질의 것이라면 내게 전하지 마시오. 내 마음이 약해질지도 모르니까 말이오." 그리고 마침내 사형 집행일이 되자 이도기는 기쁨에 넘쳐 하늘을 우러러보며 "성모 마리아님, 하례하나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도기는 1798년 7월 24일, 55세를 일기로 순교하였습니다. 그의 시신은 관장의 명에 따라 묻혔는데, 7~8일 뒤에 정산에서 조금 떨어져 사는 교우들이 그 시신을 비밀리에 찾아다가 그들의 마을에 안장하였습니다.

◆ 서울대교구 홍보국

공감 능력

'공감 능력', 프란치스코 교황님께 배운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온 세상이 교황님의 행보에 열광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라 보입니다. '프란치스코 효과'는 풍요속의 빈곤을 사는 현대인이 회복해야 할 가장 시급한 것이 이웃의 슬픔에 함께 울 수 있는

능력을 일러줍니다. 교황님께서 소외된 이들을 만나실 때마다 보여주신 연민의 눈길은 "누가이들을 위해 울어준 적이 있는가?"라는 말씀으로 제 귀에울립니다. 고통 중에 있는 이들과 만나실 때 더욱 밝게 빛나던 교황님의 모습에서 착한 목자이신 주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먼 거지의 외침

예수님께서 당신의 수난과 부활을 세 번째로 예고하신후, 예리코로 들어가셨습니다.(마르 10,46-52) 공생활의 마지막 여정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 지나야 할 장소였지요. 예수님 주위로 많은 군중이 몰려들어 거리는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틈에 끼 수 없어길가에 외따로 앉아 있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눈먼 거지 바르티매오였습니다. 그는 군중의 소란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기 때문임을 알게 되자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마르 10,48)하고 외치기시작했습니다.

군중의 방해

눈먼 거지는 자신의 절규 소리가 예수님의 귀에 들릴때까지 더욱 크게 외칩니다. 그러나 장애물을 만납니다. 군중이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으며 압력을 가합니다. 군중의 관심은 바르티매오가 절박하게 필요로 하는 자비가 아니라, 자신들의 얕은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행위에 대해 자자한 소문을 들은터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구경하기 위해 몰려들었을 뿐입니다. 호기심에 들뜬 군중은 눈먼 거지의 아픔과 고통에 전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가 어떤 곤경에 있는지도차 볼 수 없는 눈이 없는 군중은 당연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반면에 처절한 가난에 짓눌려 있는 눈먼 거지는 마음의 눈으로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분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며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청합니다.

예수님의 공감 능력

예수님의 행보는 역시 싸늘한 군중과 달랐습니다. 가시던 걸음을 멈추시고 바르티매오에게 관심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오라고 이르십니다. 사람들이 눈먼 거지를 부르러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마르 10,49) 예수님의 공감 능력을 본 사람들의 차가운 자세가 변화를 보입니다. 잠자코있으라고 꾸짖던 그들이 '용기를 내라'고 그를 격려합니다.

죽음의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길목에서 예수님이 눈먼 거지에게 베푸신 사랑은 주님이 지상에 오신 목적을 잘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의 자비를 입은 바르티매오는 시력을 회복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건너와 새롭게 태어난 것이지요.

◆ 민남현 수녀 / 성바오로딸수도회

† 땅 위에서 드리는 기도...자비의 주님,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든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보듬는 공감 능력을 회복할 때 우리의 가난이 주님의 은총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을 믿게 하소서.